【 2019.8.7(수) 강원일보 】

"GTI 박람회 성공개최 범도민 붐 조성 앞장"

도·7개 단체-기업 업무협약
기업 수출역량 강화 적극 협력
10월17~20일 원주서 열려
의료기기 전시회 등 동시 개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MOU 체결식이 6일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종완 강원FC 대표(왼쪽부터), 김현욱 하이트 진로(주) 원주지점장,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 조창진 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 전금순 도여성단체협의회장, 김경제 한국철도공사 청량리역장, 전창대 (주)더픽트 대표. 김남덕기자

올 10월 원주에서 열리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강원도 내 7개 단체 및 기업 등이 힘을 모은다.

강원도는 6일 강원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도상공회의소협의회, 도경제단체연합회, 도여성단체협의회, 하이트진로(주), 코레일, 강원FC, 청년기업 ㈜더픽트 등과 함께 GTI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다자간 상생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경제단체와 여성단체는 오는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원주에서 열리는 GTI 박람회 관람과 범도민 붐 조성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GTI 경제협력포럼, 아시아여성CEO대회 등에 참여하는 등 동북아지역과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의 수출증진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기로 했다.

코레일은 박람회와 관광지를 연계한 상품 개발 및 판매, 하이트진로(주)는 치맥축제를 개최하고 주류 45만병에 박람회를 안내하는 백 라벨 부착, 강원FC는 박람회 홍보 등을 각각 다짐했다. 청년기업 ㈜더픽트는 박람회를 VR로 촬영하고 기업의 생산라인과 제품 및 결제정보를 확보, 박람회가 종료된 후에도 가상공간에서 1년 내내 박람회가 열리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올해 박람회장 내에 별도 공간을 배정해 차별화에 나선다. 제15회 의료기기 전시회와 2019 마을기업 박람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동시에 개최한다. 원주시 기업 전용관을 운영하는 한편 야시장도 대폭 확대 개장해 박람회 안에 또 다른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박람회 연계 치맥축제 한중교류의 밤, 야시장 3야(夜) 이벤트, GTI 경제협력포럼 및 세계한상지도자대회, 아시아 여성CEO대회 등을 연쇄적으로 개최한다.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기관단체가 GTI 박람회 성공 개최에 적극 앞장서 고맙다"며 "이번 박람회가 기업들의 현장 판매와 함께 수출을 배가시키는 실속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원격의료·전기車 집중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

도 이모빌리티 제품 발표·설명회
디피코·SJ테크 생산 신차 소개

◇6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린 이모빌리티 생산제품 발표회에 참석한 최문순 지사가 (주)SJ테크가 생산한 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도 이모빌리티 생산제품 발표회 및 구매설명회가 6일 오후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도내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에서 생산 예정인 초소형 전기차 등 이모빌리티 제품의 판로 확보와 잠재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차발표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주)디피코와 (주)SJ테크가 각각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신차를 소개했다.

최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가 고민 끝에 원격의료와 전기자동차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며 "강원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제지도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횡성에서 생산을 준비 중인 전기차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국내에서 많이 팔려야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구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 지사와 함종국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한왕기 평창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박두희 횡성군수 직무대행, 신재섭 원주시의장, 변기섭 횡성군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조창진 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와 시민 100여명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원주=이명우기자 woolee@

【 2019.8.7(수) 강원일보 】

해외왕래

재필리핀강원경제인 간담회

◇오인철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재필리핀 강원도 경제인과의 간담회 및 필리핀한인경제인총연합회와의 MOU 체결을 위해 7일 출국해 10일 귀국.

건설협-KT 통신시설 피해방지 협약 도내 건설 현장의 통신 시설 피해 방지를 위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와 KT 강원고객본부 간 업무협약식이 6일 건협 도회 회의실에서 오인철 회장과 유창규 KT 강원고객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건설현장 통신시설 보호' 전국 첫 공조

건설협 도회-KT강원고객본부 피해 예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강원 종합건설업계와 KT가 건설현장 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와 KT 강원고객본부는 6일 춘천 건설회관에서 '통신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건설현장의 굴착작업, 건설기계 고소 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시설 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다. 특히 전국 종합건설업계에서 KT와 상호 협력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으로 KT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통신시설 매설 정보 제공 △지도 인력 배치 △지장물 이설 등을 제공해 통신선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원활한 시공을 지원하게 된다. 도회에서는 건설현장 정보를 회원사와 공유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 밖에 회원사의 통신시설 피해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지원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건설현장에는 통신·전기시설 등 다양한 기간 시설이 매설돼 있어 훼손 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시공이 이뤄지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 2019.8.7(수)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형 전기차 베일 벗고 4차산업 선도

초소형전기차 신차 발표회
근거리 배달·택배 전용차
최지사 "강원미래 견인 산업"

강원도는 6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초소형 전기차 출시에 앞서 판로확보를 위한 제품홍보 및 구매설명회를 개최했다.

최문순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제품홍보 및 구매설명회에 전시된 전기차를 시승했다.

도가 '강원형 일자리' 모델인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첫 결실인 초소형 전기자동차 신차 발표회를 통해 4차산업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기로 했다.

도는 6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초소형 전기차 출시에 앞서 판로확보를 위한 제품홍보 및 구매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매설명회에는 최문순 지사, 함종국 도의회 부의장과 도의원, 오인철 도경제단체연합회장,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노정협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장,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시군 각 조합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문순 지사의 e-모빌리티 사업추진 경과와 성과 발표, 송신근 디피코 대표이사와 유창근 SJ테크 대표이사의 사업계획 및 제품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창진 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전기자동차 15대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을 밝힌 기관 단체는 오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강원형일자리 노사상생협약식에서 별도의 구매협약식을 갖는다.

최문순 지사는 전기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 기관 단체에서 많은 구매를 요청했다. 최 지사는 "전기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스스로 기술과 돈을 투자해 생산하는 모델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할 대표적인 산업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신근 디피코 대표이사는 "편의성과 친환경을 고려한 적재적량 350kg미만의 근거리 배달과 택배전용 화물차"라며 "각 기관 단체에서 많이 구매해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유주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협약 강원도 내 경제·여성단체 등 7개 기관·기업이 6일 강원연구원에서 제7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자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협회 강원도회·KT 협약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와 KT강원고객본부(본부장 유창규)는 6일 춘천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통신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2019.8.7(수)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KT, 통신시설 피해예방 협력 MOU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와 KT 강원고객본부는 6일 춘천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통신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전국 최초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도내 건설현장(굴착작업, 건설기계 고소 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은 "최근 건설현장은 전기, 가스, 통신 등 다양한 기간 시설이 매설되어 있어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설 훼손 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KT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건설업체의 적정 시공을 돕겠다"고 말했다.